

Multicultural Family Parent Education Research Trend Analysis - Focusing on Domestic Doctoral Dissertations from 2012 to 2022 -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 연구 동향 분석 - 2012년-2022년까지 국내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Jang Mi Kim¹, Mi Na Lee²

김장미¹, 이미나²

¹ The Doctor's Course, Department of Human Service Education, Kwangshin University, South Korea,
yesjangmi@naver.com

² Professor, Welfare Counseling Convergence Department, Kwangshin University, South Korea,
lmn4780@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Mi-Na Le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search trends in multicultural family parent education. Through multicultural family parent education, we promote cooperation with social organizations to provide a variety of services, and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educational programs, and counseling services to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linkages with childcare and communities. Accordingly, by analyzing research trends on parent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from 2012 to 2022, focusing on doctoral theses published in Korea, we provide basic data that can help develop future needs and programs for parent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re is a purpose for this study. For this purpose, 160 domestic doctoral theses were analyzed. The search terms for the analysis criteria were based on a total of 15 key words, including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family, couple education, parent education, parent education program, parent-child raising method, and bilingualism.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rough parent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parents were provided with information about raising children, their confidence in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nd their role as parents increased, and it was found that connection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was necessary in the futur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rends in multicultural family parent education research. Recently, it can be used to develop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and is expected to provide positive material support for parent education for more diverse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s: Multicultural, Multicultural Family, Parent Education, Parent Education Program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진행을 통하여 사회적 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커뮤니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다문화 가족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 상담

Received: August 23, 2023; 1st Review Result: September 24, 2023; 2nd Review Result: October 28, 2023
Accepted: November 25, 2023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에 국내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박사학위 논문 160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을 위한 검색어는 다문화, 다문화 가족, 부부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프로그램, 부모-자녀 양육방법, 이중언어 등 총 15가지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 가정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는 자녀양육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부모역할에 자신감이 증가되었으며, 추후 교육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 연구 동향은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에 긍정적인 자료 지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다문화,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 부모교육프로그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은 다문화가족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양육태도와 부모효능감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접근 방법이다[1][2].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 성장하여 한 가족을 이루는 문화간의 이해와 소통을 촉진해 한다[3-5]. 다문화 가족이라는 타이틀의 얽매어 현재 한국에 살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문화라는 명패를 달고 다른 시선을 느끼는 한국인 아빠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주여성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6] 그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나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는 한 가족의 가장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7] 반드시, 부모교육을 통해서 혹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여러가지 관계사회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8].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다문화 가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양육효능감이 성취되어[9] 다양한 경험의 지식을 부모들에게 제공하여 자녀의 문화적 성장과 교육적 성취를 지원해주기 위함이다[10]. 또한 사회적인 조화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간의 편견을 줄이며 스스로의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어 [11]한 가족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자존감 형성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의 행복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의 10여년 동안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아 주제 키워드에 맞춰 어느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며 분석을 했는지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형성되었을 때[12] 가족정체성이 확립되면 의사소통 훈련이 회복 탄력성과 부모효능감이[13]향상되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이 더 특별한 환경의 축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성장하고 또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족 부모님들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대하기 위함이다[14].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맞게 연구문제를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2.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대상별 동향은 어떠한가?
3.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내용별 동향은 어떠한가?
4.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별 동향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글로벌화와 이민 현상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은 다양한 문화, 언어, 가치관, 교육 방식 [15]등을 가진 가족들이 한데 모여 살아가는 가족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주여성과의 가족을 형성하게 됨을 흔히 말하게 된다[16]. 이러한 가족에서는 다문화적인 도전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17] 특히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교육은 가족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지원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18].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다문화적인 가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이민자 부모들은 자신들의 문화적인 가치관과 교육 방식을 자녀에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현지 사회의 교육 체계와 문화적응과 정체성에 부응해야 한다[19].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양육행동에 따른 자녀들의 양육효능감이 성취되어[9] 다양한 경험의 지식을 부모들에게 제공하여 자녀의 문화적 성장과 교육적 성취를 지원한다[10]. 특히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와 가족의 의사소통의 연결 고리가 형성되지 않아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주위의 도움으로 해결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20].

둘째,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대화를 촉진하여 사회적인 조화를 도모한다[21]. 다문화가족에서 자란 자녀들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식과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의 다문화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문화 간의 이해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은 다양한 문화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문화 가족들 간의 교류를 도모하여 사회적인 조화와[22]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간의 편견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다.

셋째,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은 부모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23]. 다문화 가족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언어에 대한 불편함으로 자신들의 교육 능력과 정보 및 내 자녀의 학교생활의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11].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은 부모들에게 다문화 가족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의 교육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11]. 또한,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 간의 네트워킹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지원과 정보 공유의 기회를 갖고 인프라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25]. 이는 다문화 가족 부모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26], 상호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공유하고[27]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시군구의 지자체에서 만든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커뮤니티 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28] 다문화 가족 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영향력을 증진시킨다[29]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문헌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다음의 단계 과정을 통해서 수집되었다

첫째,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누리미디어(DBPLA), 한국학술정보(ksl klls) 예비부모교육 연구동향 분석 등재지 중심으로 교보문고, 학술교육원, 코리아스칼라, NRF를 이용하여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동안 최근 발표된 학술지 논문의 컴퓨터 검색을 실시하였다. 컴퓨터 검색 시 사용한 검색어는 다문화,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 부모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 연구, 부모-자녀 교육, 부모양육, 부모양육스트레스, 이중언어교육 등이었으며 띄어쓰기를 체크하여 15가지의 검색어를 사용하였다.

둘째, 수집된 학위논문은 riss에서 기본 검색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도서관 및 국회중앙도서관에서 수집된 국내 박사학위논문을 사용하였다

셋째, 분류기준은 연구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년도 기준까지 11여년의 160편의 국내박사학위논문이 검색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 국내 박사학위논문으로 발표된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이다. 선정한 자료는 총 160편을 발행연도별, 연구방법별, 연구대상별, 연구내용별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범주에 따라 본인이 분석에 대한 논문 160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하고 분석 기준을 재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2회 거치면서 분석기준과 심의과정을 거쳐서 일치시켰다. 분석 준거는 발행년도, 대상별, 연구내용별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발행년도에서는 연도별로 검색하여 국내 박사학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연도별 동향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표 1]와 같다.

[표 1]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연도별 동향

[Table 1] Yearly Trends in Papers Related to Parent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연도	빈도(N)	백분율(%)
2012	17	10.63
2013	14	8.75
2014	16	10.00
2015	8	5.00
2016	21	13.13

2017	15	9.37
2018	12	7.50
2019	15	9.37
2020	15	9.37
2021	13	8.13
2022	14	8.75
계	160	100.00

* 출처는 Riss를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연구자가 분류한 내용임.

[표 1]에서와 같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0편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16년 21편(13.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 17편(10.62%), 2014년 16편(10.00%)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2019년, 2020년은 15편(9.37%), 2013년, 2022년 14편(8.75%)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12편(7.50%)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8편(5.00%)으로 나타났다 소수점 이하 3자리는 반올림하여 정리하였다.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2016년도에 가장 많이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내의 사회적인 이슈와 현상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4.2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대상별 동향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대상별 동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대상별 동향

[Table 2] Trends by Target in Paper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y Parent Education

대상	빈도(N)	백분율(%)
영유아	15	9.37
아동	31	19.37
청소년	46	28.74
부모	2	1.25
이주여성, 남성	21	13.13
교사	9	5.63
장애자녀	6	3.75
아동과 청소년	5	3.13
특수교사	1	0.63
기타	24	15.00
계	160	100.00

* 출처는 Riss를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연구자가 분류한 내용임.

[표 2]에서와 같이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대상별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0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46편(28.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연구가 31편(19.38%), 다문화 가족을 형성하는 이주여성과 남성에 대한 연구가 21편(13.13 %)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에 관련연구는 15편(9.37%), 다문화 청소년과 아동을 지도 하고 있는 교사에 관한 논문은 9편(5.63 %)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자녀와 특수한 아동에 대한 연구는 6편(3.74%)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연구하는 것은 5편 (3.13%)으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사에 관한 논문은 1편(0.6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 란에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된 다양한 논점으로 가족해체 교직원 퇴직문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교부금 관련한 부분과 난민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수학능력평가도구에 대한 연구를 각각 진행하여 기타 란으로 정리를 했으며 소수점 이하 3자리는 반올림 하여 정리하였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다문화 가족의 부모교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자녀에 대한 내용이었다. 영유아(9.37%), 아동(19.38%), 청소년(28.75%), 아동과 청소년(3.13%), 특수아동(3.75 %), 이처럼, 모든 논문의 50%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이 먼저 부모님들의 바람직한 양육과 교육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4.3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내용별 동향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내용별 동향을 살펴보면 [표 3]와 같다.

[표 3]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내용별 동향

[Table 3] Trends by Content in Related Papers on Multicultural Family Parent Education

세부 내용	빈도(N)	백분율 (%)
효능감 및 탄력성	15	8.15
정체성	29	15.76
문화적응	20	10.87
언어	7	3.81
국가별	15	8.15
종교성	8	4.35
자녀양육	9	4.89
특수교육	7	3.81
탈북청소년 및 중도입국자	13	7.06
학교생활	24	13.04
미디어 및 소셜	25	13.58
기타	12	6.53
계	184	100.00

*(중복체크 함) 출처는 Riss를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연구자가 분류한 내용임.

[표 3]에서와 같이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내용별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교육의 관련 내용 중 주요용어들에 대한 빈도수를 정리하였다.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에서 가장 많은 내용은 청소년들과 관련된 연구동향이다.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29편(15.76%)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미디어 및 소셜네트워크, SNS에 대한 연구는 25편(13.58%), 학교생활 24편(13.79%), 이주여성들과 중도 입국자 자녀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20편(10.87%), 효능감과 탄력성에 대한 것과 각 나라별의 연구동향은 각각 15편(8.15%), 탈북청소년과 중도 입국자녀들의 관련 연구는 13편(7.06%), 자녀양육 9편(4.89%), 종교성 8편(4.35%), 언어와 특수교육은 각각 7편(3.81%) 그리고 기타 12편(6.53%)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것은 다문화 가족 자녀들과 이주 여성들의 문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내용이라 겹친 부분이 다소 많아 60편을 넘은 184편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종교성에서는 기독교적인 박애주의 사상이 커서 이주여성들과 현지에서 살고 있는 이웃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성으로 타 종교보다는 많은 연구가 활발하였다.

4.4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별 동향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별 동향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다문화 가족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별 동향

[Table 4] Trends by Research Method in Paper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y Parent Education

내용	빈도	백분률
양적	72	33.49
질적	근거이론	5.12
	내러티브	3.72
	현상학적	4.19
	기술지	6.04
	사례연구	11.16
	심층 면담	12.56
	문헌고찰 연구	15.35
기타	18	8.37
계	215	100.00

*(중복체크 함) 출처는 Riss를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연구자가 분류한 내용임.

[표 4]에서와 같이 부모교육의 관련 논문중 연구방법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논문을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동시 함께 병행되는 통합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중복 체크가 되었으며 양적연구는 72편(33.49%), 질적연구로는 문헌고찰 연구 33편(15.35%), 심층면담 27편(12.56%), 사례연구 24편(11.16%), 기술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 한 것을 함께 정리하였는데 13편(6.04%), 근거이론 11편(5.12%), 현상학적 9편(4.19%), 내러티브 8편(3.72%), 기타 18편(8.37%)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및 결론

이상과 같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박사과정 학위 논문을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서로 함께 교육을 받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및 교류를 통해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될 수 있으며, 자녀와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다각적으로 많은 연구와 긴밀한 사회교육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의 어려움은 자아정체성과 회복 탄력성의 내면의 강인함이 큰 자신감과 함께 학교에서의 학업이 높은 성취도를 보이며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주여성들은 언어문제와 함께 의사소통의 자유로움 속에서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회의 교육기관과 이웃의 관심이 외롭지 않고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며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내 출산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중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이주여성의 강점과 젊은 세대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태도를 수용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부모로서 알아야 자녀를 이해하고 계속 변화해 가는 시대에 맞게 이해의 폭도 좁혀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 부모 교육현장에서 서로 알고 공유하게 되는 새로운 인프라로 인하여 나와 같은 처지의 많은 가족들을 만남으로써 동변상련이라는 마음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다문화 가족이라는 어려운 마음을 나누고 헤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한국인 아빠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이며 아내를 더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기에 부모의 이러한 변화는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사회적 능력 및 학업 성취능력 향상과 학교적응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부모교육은 부모의 변화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엄마의 고향 언어와 한국어 이중언어를 구사함으로써 특별한 환경에서 세계 시민성을 자연스럽게 강화하며 자신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모하는 글로벌한 인재으로써 건강하게 성장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 Y. Kook, The impact of the PET program on the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al 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Mokpo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1)
- [2] K. M.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s, Home Environment and Learning Behaviors for Preschool Children, KyungHee University, Master Thesis, (2006)
- [3] D. H. Kim, A study of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of immigrant women for marria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o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Thesis, (2008)
- [4] M. J. Kim,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Children, Self-efficacy, and Stress Coping Behaviors,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2002)
- [5] S. Y. Yoon, G. S. Kang, The Effects of Song Psychotherapy on the Acculturation Stress an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ilot Study,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016), Vol.18, No.2, pp.119-138.
DOI: <https://doi.org/10.21330/kjmt.2016.18.2.119>

- [6] O. M.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al Dissertation, (2006)
- [7] O. N. Kim, K. S. Kim, J. H. Lee, A Study on Improvement of Marital Relationship Program for Immigrant Women's Husbands,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08), Vol.26, No.1, pp.69-84.
UCI: G704-000320.2008.26.1.006
- [8] S. J. Shin,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al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Yonse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7)
- [9] S. J. Seo, Maternal Self-Efficacy : A Mediational Model of Quality of Parenting, Human Ecology Research, (2004), Vol.42, No.4, pp.11-27.
UCI: G704-000012.2004.42.4.003
- [10] H. Seo, S. E. Lee, A Study on the Difficulties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in Agricultural Region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7), Vol.12, No.4, pp.25-47.
UCI: G704-000666.2007.12.4.019
- [11] I. O. Jeon, Differences between mothers' educational beliefs and self-efficacy and children's self-concept,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1997)
- [12] Y. K. Cho, Implementation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parent education programs, Pusan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6)
- [13] S. H. Yeo, The effect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arent education program on parent efficacy and parent-child interac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04)
- [14] J. S. Oh, The Effect of the Active Parenting Now Program on the Self-Esteem, Child-Rearing Attitude and Communication of the Mother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Mokpo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1)
- [15] M. J. Shin, D. H. Seol, Social Trust and Civic Engagement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South Korea: At the Focus of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Civic Self-efficacy and Discrimination, Discourse 201, (2022), Vol.21, No.1, pp.113-145.
DOI: <https://doi.org/10.17789/discou.2022.21.1.004>
- [16] G. S. Choi,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s: Focusing on Daegu and Gyeongbuk regions, Keimyung University, Master Thesis, (2006)
- [17] G. H. Shin, A study on the factors of marital conflict i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 focusing on the marital relationship between Korean men and Filipino women, Chosun University, Master Thesis, (2005)
- [18] G. J.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ived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self-concept, and school life adjust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 Thesis, (2003)
- [19] J. H. Park, J. G. Jeong, Acculturation and Identity of Immigrant W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7), Vol.12, No.4, pp.395-432.
DOI: <https://doi.org/10.18205/kpa.2007.12.4.001>
- [20] A. N. Lim, Family relationships and transnational prospects of Filipino women married to Korean men,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05)
- [21] H. Y. Kang, T. H. Kim, The effect of the Language Development Program on the multi-cultural infant's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and on their mother's nurturing attitud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1), Vol.12, No.2, pp.523-537.
DOI: <https://doi.org/10.15703/kjc.12.2.201104.523>
- [22] S. A. Kim, Y. J. Han, The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and stress, and knowledge on child rearing on his parenting self-efficacy,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09), Vol.18, No.1, pp.55-64.
DOI: <https://doi.org/10.5934/KJHE.2009.18.1.055>
- [23] J. S. Lee, A Study of Childcare and Education, Fathers' Childcare Participation in 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7), Vol.12, No.6, pp.21-42.

UCI: G704-000666.2007.12.6.012

- [24] H. M. Jeon,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jou University, Master Thesis, (2009)
- [25] E. C. Jeong,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 Media-based Participatory Multicultural Education Cases,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11), Vol.19, No.1, pp.73-113.
UCI: G704-000598.2011.19.1.003
- [26] M. J.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multicultural acceptance scale, Kore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0)
- [27] Y. G. Park, S. Y. Lee, Research study on the school life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diversity within groups, Citizen education research, (2009), Vol.41, No.1, pp.41-71.
DOI: <https://doi.org/10.35557/tree.41.1.200903.003>.
- [28] G. J.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ived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self-concept, and school life adjust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 Thesis, (2003)
- [29] G. S. Choi,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s: Focusing on Daegu and Gyeongbuk regions, Keimyung University, Master Thesis, (2006)